

WEBVTT

00:00:11.020 --> 00:00:12.382

안녕하세요?
반갑습니다.

00:00:12.506 --> 00:00:14.889

여러분의 역사 완성자,
류성완입니다.

00:00:14.989 --> 00:00:17.481

너무너무 반갑습니다.
좋습니다.

00:00:17.581 --> 00:00:22.266

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
있었던 국내민족 운동.

00:00:22.366 --> 00:00:28.629

그다음에 우리 민족말살정책에 맞서서
우리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.

00:00:28.729 --> 00:00:32.096

당시 국내에는 어떤
움직임들이 있었는지

00:00:32.196 --> 00:00:33.390

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33.490 --> 00:00:36.278

우리 지난 강에는 여러분,
무장독립운동사 배웠었죠?

00:00:36.378 --> 00:00:39.762

정말로 어려운 파트였는데
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.

00:00:39.862 --> 00:00:46.656

그런데 사실은 지난 강보다 오히려
이번 강이 학교 내신 대비에는

00:00:46.772 --> 00:00:48.858

조금 더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.

00:00:49.014 --> 00:00:51.585

그러니까 조금 더
집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00:51.685 --> 00:00:56.512

오늘 있는 내용들 하나씩
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56.612 --> 00:01:00.190

일단은 여러분이 좀
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.

00:01:00.290 --> 00:01:03.930

뭐가 있냐면 학생들이
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.

00:01:04.030 --> 00:01:09.051

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,
이런 단어를 쓰면 어떻습니까?

00:01:09.151 --> 00:01:12.728

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자, 이런
단어가 꽤 괜찮게 느껴져요.

00:01:12.828 --> 00:01:17.428

그런데 유럽 같은 데에서는 민족주의자,
nationalism이라고 하면

00:01:17.528 --> 00:01:19.000

오히려 더 큰일 납니다.
왜?

00:01:19.100 --> 00:01:22.946

그 민족주의에 기반을 해서 나온
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?

00:01:23.046 --> 00:01:25.327

틀러 틀러 히틀러 같은
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.

00:01:25.427 --> 00:01:28.227

그러니까 뭔가 민족을
우선한다, 라는 건

00:01:28.327 --> 00:01:30.687

유럽에서는 조금 위험한 단어지만

00:01:30.787 --> 00:01:34.267

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민족주의자
하면 나쁜 인식이 나쁘지 않죠.

00:01:34.367 --> 00:01:35.939

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

00:01:36.039 --> 00:01:39.691

우리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
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

00:01:39.791 --> 00:01:42.086

되게 알레르기 반응이
나오게 됩니다.

00:01:42.186 --> 00:01:48.068

물론 6.25 전쟁이라는 게
있어서 또 민족 간의 대립이,

00:01:48.168 --> 00:01:51.430

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
어쩔 수 없지만

00:01:51.530 --> 00:01:55.066

이 파트에서는 1920년대 당시

00:01:55.166 --> 00:01:57.671

우리나라의 무슨 일이
있었는지 배우는 것이니까

00:01:57.771 --> 00:02:01.566

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었다는
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.

00:02:01.666 --> 00:02:02.999

첫 번째, 민족주의고요.

00:02:03.099 --> 00:02:05.577

그다음이 사회주의입니다.

00:02:05.677 --> 00:02:08.560

그런데 이 민족주의와
사회주의를 이야기할 때

00:02:08.660 --> 00:02:11.629

여러분,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.

00:02:11.729 --> 00:02:17.158

조선에 자본가가 있고요.

00:02:17.258 --> 00:02:22.389

일본에 자본가가 있습니다.

00:02:27.813 --> 00:02:30.648

아, 둘 다 자본가면
안 되잖아, 여기는 노동자여야지.

00:02:30.748 --> 00:02:34.129

일본에 노동자가 있고요.

00:02:34.229 --> 00:02:37.888

그리고 일본에 자본가가 있고...

00:02:37.988 --> 00:02:41.469

죄송해요, 나 왜 이래?

00:02:45.720 --> 00:02:50.399

여기는 일본에 자본가.

00:02:50.499 --> 00:02:57.193

그다음에 조선에 노동자.

00:02:57.293 --> 00:03:02.553

그다음에 일본에 노동자가
있다고 해봅시다.

00:03:04.913 --> 00:03:07.227

편을 한번 나누자면
선생님, 무슨 말씀이세요?

00:03:07.327 --> 00:03:10.288

당연히 여기 조선
1팀, 일본 1팀.

00:03:10.388 --> 00:03:11.966

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.

00:03:12.066 --> 00:03:16.225

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
생각은 민족주의적 관점이에요.

00:03:16.325 --> 00:03:18.642

그 어떤 것보다 뭐가
우선한다는 거죠?

00:03:18.742 --> 00:03:21.870

민족이 우선한다는 생각이 있기
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.

00:03:21.970 --> 00:03:25.843

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파트에 나올

00:03:25.943 --> 00:03:32.014

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
보지 않습니다.

00:03:32.114 --> 00:03:35.638

사회주의자들은 그 어떤
것보다 무엇을 우선하냐면

00:03:35.738 --> 00:03:40.883

계급을 가로 짓는 계층,
계급이 가장 우선한 거예요.

00:03:40.983 --> 00:03:44.144

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이걸
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?

00:03:44.244 --> 00:03:48.392

타도해야 될 자본가, 그다음에 노동자.

00:03:48.492 --> 00:03:51.548

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,
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

00:03:51.648 --> 00:03:53.873

이렇게 나누게 됩니다.

00:03:53.973 --> 00:03:55.815

그러니까 여러분, 이거
분명히 하셔야 돼요.

00:03:55.915 --> 00:04:00.622

노동자들, 이 사회주의자들은 그
어떤 것보다 무엇을 우선한다고요?

00:04:00.722 --> 00:04:02.707

계층.
계급을 우선합니다.

00:04:02.845 --> 00:04:06.900

국가나 민족보다 그걸
더 우선시하는 게

00:04:07.000 --> 00:04:10.299

바로 사회주의라는 거 먼저
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04:10.399 --> 00:04:13.409

일단은 우리는 이
노란색으로 나누었었던

00:04:13.509 --> 00:04:17.819

민족주의적 개념에 대해서
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4:17.919 --> 00:04:19.071

3.1 운동이 있었습니다.

00:04:19.171 --> 00:04:21.459

우리나라 거족적인
민족 운동이 있었죠?

00:04:21.559 --> 00:04:23.518

그런데 여러분, 쉽게
이야기해보세요.

00:04:23.661 --> 00:04:25.969

3.1 운동 성공한
겁니까, 실패한 겁니까?

00:04:26.069 --> 00:04:28.140

결과만으로 놓고 보면.

00:04:28.240 --> 00:04:34.435

당연히 1919년도에 전 민족이
일어난 거족적 운동이었고요.

00:04:34.535 --> 00:04:39.830

우리의 힘을 당연히 보여준 것이었지만
독립은 이루어내지 못했잖아요.

00:04:39.930 --> 00:04:43.683

그렇게 되면서 두 가지 계열에서
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

00:04:43.783 --> 00:04:47.330

첫 번째, 민족주의 계열이에요.

00:04:47.430 --> 00:04:49.178

그 어떤 것보다 민족을
우선한다는 거죠.

00:04:49.278 --> 00:04:51.158

이게 1920년대 초입니다.

00:04:51.258 --> 00:04:53.557

그래서 당시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

00:04:53.657 --> 00:04:56.430

이러한 큰 흐름이
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요.

00:04:56.530 --> 00:04:58.984

첫 번째, 실력양성 운동.

00:04:59.084 --> 00:05:03.433

우리가 봤더니 진짜 만세
만세만 외쳐서 될 게 아니라

00:05:03.533 --> 00:05:04.577

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.

00:05:04.677 --> 00:05:06.119

일단 글자도 모르잖아.

00:05:06.219 --> 00:05:08.054

글자 알게 해야지, 문맹 퇴치.

00:05:08.154 --> 00:05:10.549

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

대학 세워야 될 거 아니야.

00:05:10.649 --> 00:05:12.374

우리 계속 우민화 교육만

받고 있을 거야?

00:05:12.474 --> 00:05:15.798

우리도 고등교육 시켜서

우리들만의 인재를 키워서

00:05:15.898 --> 00:05:19.087

우리도 나름 더욱더 좋은

교육을 시켜나가야지

00:05:19.187 --> 00:05:20.754

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야?

00:05:20.854 --> 00:05:23.609

그리고 우리 물산 큰일 나려고 해.

00:05:23.709 --> 00:05:27.350

이제는 일본이 관세 없앤대, 그렇게

되면 우리나라 경제 다 파탄 나.

00:05:27.450 --> 00:05:30.670

우리나라 물건,

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써줘야지.

00:05:30.770 --> 00:05:32.823

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됐어요.

00:05:32.923 --> 00:05:35.158

이게 실력양성 운동이고요.

00:05:35.258 --> 00:05:37.179

또 하나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.

00:05:37.279 --> 00:05:39.365

이게 바로 자치론이에요.

00:05:39.465 --> 00:05:42.117

이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

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

00:05:42.217 --> 00:05:45.998

춘원 이광수입니다.

00:05:46.098 --> 00:05:51.603

우리나라 문화계에서 당대

천재로 불렸었고요.

00:05:51.703 --> 00:05:56.606

우리나라 초기 문화계를 이야기할 때

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

00:05:56.706 --> 00:05:58.199
바로 이 춘원 이광수죠.

00:05:58.299 --> 00:06:00.253
그런데 이광수라는
사람이 뭐라고 하나면

00:06:00.353 --> 00:06:03.826
야, 우리 솔직해지자.
우리 독립할 수 있어?

00:06:03.926 --> 00:06:06.227
우리 독립 못 해.
그러니까 뭐하면 돼?

00:06:06.327 --> 00:06:10.969
독립하지 말고 일본의 통치를
인정하고 우리 안에서

00:06:11.069 --> 00:06:14.375
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
자치 정도나 주장하자.

00:06:14.475 --> 00:06:19.916
솔직히 우리가 무슨 독립이야, 우리
독립 못 해, 라고 이야기를 해요.

00:06:20.016 --> 00:06:24.042
이렇게 했을 때 이 이광수의
말에 동조했던 사람도 있었고

00:06:24.142 --> 00:06:25.794
비판했던 사람도 있었습시다.

00:06:25.894 --> 00:06:27.483
이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요.

00:06:27.583 --> 00:06:31.329
어쨌든 우리 실력 양성 운동
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

00:06:31.429 --> 00:06:32.358
첫 번째입니다.

00:06:32.458 --> 00:06:35.433
문맹 퇴치 운동,
문맹 퇴치는 뭐죠?

00:06:35.533 --> 00:06:37.436
일단 글을 알려주자는 것이죠.

00:06:37.536 --> 00:06:41.417
그래서 야학 같은 운동이
많이 나오게 되었었고요.

00:06:41.517 --> 00:06:45.859
무엇보다 당시에 신문들,
언론사들에서 많이 시작했습니다.

00:06:46.012 --> 00:06:48.458
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같은 신문.

00:06:48.558 --> 00:06:51.178
한글 보급 운동을
조선일보에서 했었고요.

00:06:51.278 --> 00:06:55.906
브나로드운동이 종종
시험 문제에 나옵니다.

00:06:56.006 --> 00:07:01.212
이 브나로드운동이 왜 나오냐면,
이건 러시아어예요.

00:07:01.312 --> 00:07:03.753
여기 나로드라는 게
뭐냐면 people.

00:07:03.853 --> 00:07:05.231
민중을 이야기하고요.

00:07:05.331 --> 00:07:07.736
여기 브라는 게 영어로
into예요.

00:07:07.836 --> 00:07:09.632
브나로드는 러시아어라고 했었죠?

00:07:09.732 --> 00:07:11.307
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

00:07:11.407 --> 00:07:14.554
그들을 바꿔놓아라, 라는
민중 계몽운동입니다.

00:07:14.654 --> 00:07:18.876
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왔었던
브나로드 운동이고요.

00:07:18.976 --> 00:07:21.606
그다음에 민립대학설립
운동이 있었습시다.

00:07:21.706 --> 00:07:24.155
무단통치 시대인
1910년대에 일본은

00:07:24.255 --> 00:07:28.113
우리나라 사람들을 썩먹기 위해서
우민화 교육을 시켜요.

00:07:28.213 --> 00:07:29.998
기초적인 교육만 시켜요.

00:07:30.098 --> 00:07:31.401
고등교육을 배우지 못했어요.

00:07:31.501 --> 00:07:33.627
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대학을
갈 수가 없었습니다.

00:07:33.727 --> 00:07:38.108
그래서 당시에 우리 민족들이
일어나서 우리 1천만 명이 넘잖아.

00:07:38.208 --> 00:07:41.543
한민족 1천만인이
한 사람씩 1원씩만 내라.

00:07:41.643 --> 00:07:42.673
그러면 우리 대학 세울 수 있다.

00:07:42.773 --> 00:07:45.865
우리 인재를 우리가 키울 수 있다.

00:07:45.994 --> 00:07:47.395
그렇게 하게 되는데요.

00:07:47.495 --> 00:07:49.602
그런데 일제의 방해가 있었어요.

00:07:49.702 --> 00:07:53.948
이게 1920년대 초, 22년,
23년 이때 시행되는데

00:07:54.048 --> 00:07:57.040
그때 마침 자연재해가 심했어요.

00:07:57.140 --> 00:08:02.647
거기다 1924년도에 일제가
경성제국대학을 세워줍니다.

00:08:02.747 --> 00:08:05.910
이게 지금의 서울대학교죠.

00:08:06.010 --> 00:08:08.604
경성제국대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서

00:08:08.704 --> 00:08:14.083
뭔가 우리가 대학 세워줘, 라고 할 때

00:08:14.231 --> 00:08:16.824
너희 대학 세워줬잖아?
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

00:08:16.924 --> 00:08:18.978
그렇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

00:08:19.078 --> 00:08:20.887
사실은 이 경성제국대학은

00:08:20.987 --> 00:08:25.424
일본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세워준
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?

00:08:25.524 --> 00:08:30.744
조선 안에 있는 일본인들의 고등교육을
위해서 세운 게 경성제국대학이에요.

00:08:30.844 --> 00:08:33.501
이것도 사실 어떻게

보면 제가 말씀드렸죠?

00:08:33.601 --> 00:08:36.194
기만정치에 가까웠었다고.

00:08:36.294 --> 00:08:38.966
이게 바로 민립대학
설립 운동이었었다.

00:08:39.119 --> 00:08:41.606
그다음에 하나 더,
물산장려운동입니다.

00:08:41.706 --> 00:08:42.519
이건 뭐예요?

00:08:42.619 --> 00:08:45.424
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
써야지, 라는 것이죠.

00:08:45.524 --> 00:08:46.909
내 살림 내 것으로 해야지.

00:08:47.009 --> 00:08:49.501
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
해야지, 라고 하는데

00:08:49.601 --> 00:08:52.754
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, 왜요?

00:08:52.854 --> 00:08:57.788
여러분,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
쓰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?

00:08:57.888 --> 00:09:01.356
적어도 이렇게 했었던
이유는 뭘까요?

00:09:01.456 --> 00:09:07.259
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조선
것과 일본 것을 구분했을 때

00:09:07.359 --> 00:09:09.672
오히려 이게 더 좋았으면.

00:09:09.772 --> 00:09:12.503
그러니까 같은 가격인데
제품이 더 좋거나

00:09:12.603 --> 00:09:17.055
혹은 제품이 같았으면 조선 것이 더
쌌으면, 가격 경쟁력이 있었으면

00:09:17.155 --> 00:09:18.865
굳이 이런 이야기 할
필요도 없었겠죠.

00:09:18.965 --> 00:09:20.728
그런데 이건 뭐죠?

00:09:20.828 --> 00:09:25.741

우리나라 물건이 조금 더
비싸더라도 혹은 같은 가격이면

00:09:25.841 --> 00:09:29.358
조금 제품이 떨어지더라도
넌 조선 사람이니까

00:09:29.458 --> 00:09:32.598
조선 것을 써줘야 돼,
라는 운동이죠.

00:09:32.698 --> 00:09:35.239
이건 누가 반대하는 겁니까?

00:09:35.339 --> 00:09:38.609
이 민중들이 제품이 조금 비싸거나

00:09:38.759 --> 00:09:41.356
제품이 좀 떨어지는
조선의 물건을 샀으면

00:09:41.456 --> 00:09:43.239
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건 누구예요?

00:09:43.339 --> 00:09:45.256
조선의 자본가죠.

00:09:45.356 --> 00:09:51.598
그걸 사고 쓰면서 피해를 보는
건 누가 되는 것입니까?

00:09:51.698 --> 00:09:53.581
조선의 노동자들이
될 수 있는 것이죠.

00:09:53.681 --> 00:09:59.075
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이
사회주의계에서 비판을 받아요.

00:09:59.175 --> 00:10:00.638
이거 이성적으로 하면
이해할 수 있겠죠?

00:10:00.738 --> 00:10:03.730
왜? 이들은 그 무엇보다
누구를 우선하니까?

00:10:03.830 --> 00:10:06.982
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
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계급적,

00:10:07.082 --> 00:10:09.783
계층적인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.

00:10:09.883 --> 00:10:11.967
물산장려운동은 뭐하자는 거야?

00:10:11.967 --> 00:10:14.362
조선의 자본가들만
배불려주자는 것이잖아.

00:10:14.462 --> 00:10:18.788

이거 오히려 필요 없어, 라고
비판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

00:10:18.888 --> 00:10:21.310

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10:21.410 --> 00:10:23.862

그다음에 보통은 여기 파트에서
시험 문제 나올 때는

00:10:23.962 --> 00:10:25.187

이런 거로 많이 물어봐요.

00:10:25.287 --> 00:10:27.610

한 민족 1천만이
한 사람 1원씩이라든가

00:10:27.710 --> 00:10:30.198

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
사람 조선 것으로.

00:10:30.298 --> 00:10:34.463

이런 문구들 보시면 이걸 민립대학
설립 운동, 이걸 물산장려운동.

00:10:34.563 --> 00:10:37.369

이런 것들은 좀
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10:37.469 --> 00:10:44.119

하나 더, 이 물산장려운동이랑 많이
비교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 있는데요.

00:10:44.219 --> 00:10:46.459

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
시작됐다고 했었죠?

00:10:46.559 --> 00:10:48.386

서상돈의 제의에 의해서.

00:10:48.486 --> 00:10:52.335

그런데 물산장려운동은
어디서 시작한다는 거?

00:10:52.435 --> 00:10:57.700

평양에서 시작한다는 거 결코
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.

00:10:57.800 --> 00:11:01.809

이게 조선 물산 장려회
홍보 포스터예요.

00:11:05.887 --> 00:11:06.919

봐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11:07.019 --> 00:11:10.205

이런 거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.

00:11:10.305 --> 00:11:14.355

조선 물산 장려회, 이렇게

쓰여 있는 것입니다.

00:11:14.455 --> 00:11:16.130

그다음에 이게 브나로드 운동.

00:11:16.230 --> 00:11:17.391

브나로드입니다.

00:11:17.491 --> 00:11:20.289

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!

00:11:20.431 --> 00:11:25.627

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두시면 되겠고요.

00:11:25.727 --> 00:11:28.735

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
창립 총회입니다.

00:11:28.835 --> 00:11:36.550

우리도 우리 민족만의 대학을 세워보자,
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,

00:11:36.650 --> 00:11:38.498

민립대학 설립 운동
봐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11:38.598 --> 00:11:40.251

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.

00:11:40.351 --> 00:11:44.424

구분은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고
사회주의 계열이 있었습니다.

00:11:44.524 --> 00:11:46.905

민족주의 계열의 목표는
민족 해방입니다.

00:11:47.005 --> 00:11:51.046

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조선 민족을
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.

00:11:51.146 --> 00:11:57.371

사회주의는 당시에 1920년대 초에
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받게 되면서

00:11:57.471 --> 00:12:02.058

이게 한 불과 3~5년 만에 전국적
조직으로 급속히 확산돼요.

00:12:02.158 --> 00:12:06.768

특히 청년, 학생, 농민,
노동자 등으로 확산되면서

00:12:06.868 --> 00:12:10.737

노동쟁의라든가 소작쟁의 같은
것으로 활발히 나오게 되고요.

00:12:10.837 --> 00:12:14.430

민족주의 계열은 실력 양성
운동, 농촌 계몽 운동인데

00:12:14.530 --> 00:12:15.590
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?

00:12:15.690 --> 00:12:21.152
문맹 퇴치라든가 브나로드
운동이라든가 문자보급 운동이라든가

00:12:21.252 --> 00:12:24.648
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다.

00:12:26.501 --> 00:12:30.521
그러면 이제 자치론에 대해서
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

00:12:30.621 --> 00:12:31.737
한번 보세요.

00:12:31.837 --> 00:12:34.550
이광수라는 사람이
그런 말을 했습니다.

00:12:34.650 --> 00:12:39.764
여러분, 저도 고등학교
시절이 있었지만

00:12:39.864 --> 00:12:45.656
가끔 역사 잘 모르면서 공부만
잘하는 애들이 있어요.

00:12:45.756 --> 00:12:48.889
그러면 그런 애들 보면
기대된다, 이르기보다는

00:12:48.989 --> 00:12:52.341
되게 우려스러운 학생들이
생각보다 꽤 많습니다.

00:12:52.441 --> 00:12:57.788
왜 그러냐면 바로 이광수 같은
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

00:12:57.888 --> 00:13:00.332
이광수는 머리가 꽤
좋은 사람이었습니다.

00:13:00.432 --> 00:13:03.884
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다녔을 때
그 교수들도 극찬했대요.

00:13:03.984 --> 00:13:05.947
저런 사람이 조선에 있었던 말이야?

00:13:06.047 --> 00:13:07.991
저렇게 훌륭한 사람이?

00:13:08.091 --> 00:13:10.022
대단한데? 이랬는데.

00:13:10.122 --> 00:13:11.798
그런데 그가 그렇게 똑똑한

머리로 생각해보니까

00:13:11.898 --> 00:13:13.601
우리나라 독립이 안 될 것 같더라.

00:13:13.701 --> 00:13:15.345
그게 자기한테 불리할 것
같더라는 것이죠.

00:13:15.445 --> 00:13:17.595
그래서 주장했던 게 자치론입니다.

00:13:17.695 --> 00:13:19.600
이 자치론은 어디서 주장하냐면

00:13:19.700 --> 00:13:24.098
당시 동아일보라는 언론사에
민족적 경륜이라고 해서

00:13:24.198 --> 00:13:25.983
연재했던 글이에요.

00:13:26.083 --> 00:13:27.526
그러면서 자치론을 주장합니다.

00:13:27.626 --> 00:13:30.142
솔직히 우리 독립할 수 있는
힘 없어.

00:13:30.242 --> 00:13:32.601
그리고 일본이 독립시켜줄 거 같냐?

00:13:32.701 --> 00:13:33.935
우리 그러지 말고

00:13:34.035 --> 00:13:39.441
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정도만 다스릴 수
있도록 자치 정도만 하자.

00:13:39.541 --> 00:13:43.060
식민통치는 인정해야
돼, 라는 것이죠.

00:13:43.160 --> 00:13:47.086
이 이광수의 생각에 동조했던
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?

00:13:47.186 --> 00:13:50.221
자신들의 마음을 타협하는
민족주의자들이죠?

00:13:50.321 --> 00:13:55.305
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
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있다고 하고요.

00:13:55.405 --> 00:13:58.786
다른 말로 자치론자라고도 합니다.

00:13:59.624 --> 00:14:01.808
그리고 그를 비판했던
세력도 있습니다.

00:14:01.908 --> 00:14:04.166

이광수 너 미쳤어?

춘원, 너 미쳤어?

00:14:04.266 --> 00:14:08.511

이러고도 네가 조선 사람이야?

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

00:14:08.611 --> 00:14:10.901

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

00:14:11.001 --> 00:14:15.514

춘원 이광수의 이러한 자치론을 철저하게

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

00:14:15.614 --> 00:14:19.417

그런데 이들을 가르켜서 우리는

절대 독립론자라고도 표현하죠.

00:14:19.517 --> 00:14:23.368

이 표현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대로

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시면 좋겠는데

00:14:23.468 --> 00:14:25.426

중요한 건 여러분, 생각해보세요.

00:14:25.526 --> 00:14:28.730

자치론자들의 수가 처음에

많았을까요, 적었을까요?

00:14:28.830 --> 00:14:31.113

처음에는 수가 적었습니다.

00:14:31.213 --> 00:14:33.636

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,

00:14:33.736 --> 00:14:37.423

즉 절대 독립론자들이

수적으로는 많았죠.

00:14:37.523 --> 00:14:42.404

그런데 이게 23년, 24년, 25년

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

00:14:42.504 --> 00:14:45.282

수적으로 양상이 바뀌어요.

00:14:45.382 --> 00:14:46.804

어떻게 됩니까?

00:14:46.904 --> 00:14:48.647

야, 우리 솔직해지자.

00:14:48.747 --> 00:14:50.422

솔직히 춘원 말이 맞는 거 아니야?

00:14:50.585 --> 00:14:52.641

우리 독립할 수 있어?

못하잖아.

00:14:52.741 --> 00:14:54.892

3.1 운동 그렇게
해서도 못 했잖아.

00:14:54.992 --> 00:14:56.579

난 춘원 말 솔직히 맞다고 생각해.

00:14:56.679 --> 00:14:57.871

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.

00:14:57.971 --> 00:14:58.971

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

00:14:59.071 --> 00:15:02.282

이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

00:15:02.382 --> 00:15:05.226

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춘원이
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

00:15:05.326 --> 00:15:08.730

그럴 수 있겠네, 라고 하면서
여기에 있던 절대 독립론자.

00:15:08.830 --> 00:15:13.162

즉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점점
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.

00:15:13.262 --> 00:15:16.847

이제는 수가 나름
엇비슷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.

00:15:16.947 --> 00:15:18.324

물론 이게 통계적으로는
나올 수 없지만,

00:15:18.466 --> 00:15:20.124

전체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

00:15:20.224 --> 00:15:24.588

이렇게 됐을 때 이
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

00:15:24.688 --> 00:15:27.180

무엇인가 위기감에
느끼지 않았을까요?

00:15:27.280 --> 00:15:28.291

생각해보세요.

00:15:28.391 --> 00:15:31.000

우리가 처음에는 100명이였었고
저기가 한 10명밖에 안 됐는데

00:15:31.100 --> 00:15:34.319

저기는 50명 됐고 우리도
50명 정도 된 느낌이 들어.

00:15:34.419 --> 00:15:36.906

이거 이러다 우리가
더 줄어들겠는데?

00:15:37.006 --> 00:15:41.471
저기가 더 늘어나겠는데? 라고 하는
그런 불안감이 들지 않았을까요?

00:15:41.571 --> 00:15:47.932
맞아요, 이 불안감이
1926, 1927년 오면서

00:15:48.032 --> 00:15:51.753
이것을 타개하기 위한
타개책을 이들이 고민합니다.

00:15:51.853 --> 00:15:54.676
그래서 조선민흥회라는 것을 만들어서

00:15:54.776 --> 00:15:59.048
당시 사회주의계랑 약간 연대하는
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.

00:15:59.148 --> 00:16:00.152
하나 더 가볼게요.

00:16:00.252 --> 00:16:01.788
당시 사회주의 움직임입니다.

00:16:01.888 --> 00:16:03.459
그러니까 그 느낌 한번 보세요.

00:16:03.559 --> 00:16:06.481
민족주의 내부에서는
그 느낌이 어떻다고 했었죠?

00:16:06.581 --> 00:16:14.624
이광수의 민족적 경륜, 즉 자치론이
초기에는 수가 얼마 안 됐지만

00:16:14.724 --> 00:16:16.698
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게 되고

00:16:16.860 --> 00:16:21.796
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뭔가
위기감에 빠져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

00:16:21.896 --> 00:16:24.647
그 상태에서 이제 사회주의
한번 보겠습니다.

00:16:24.747 --> 00:16:28.802
사회주의는 1920년대 초에
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했었죠?

00:16:28.902 --> 00:16:31.034
그런데 급속도로 확산돼요.

00:16:31.134 --> 00:16:34.984
왜 그렇게 확산되냐, 어떤
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

00:16:35.084 --> 00:16:39.199
1920년대 나름의 생각이

있는 당시의 노동자나

00:16:39.299 --> 00:16:42.106
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

00:16:42.206 --> 00:16:45.108
사회주의는 너무나
매력적인 사상입니다.

00:16:45.208 --> 00:16:47.497
왜요?
선생님, 그런 말씀 마세요.

00:16:47.597 --> 00:16:50.992
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
공산주의자도 전혀 아니에요.

00:16:51.092 --> 00:16:55.502
그런데 이 시대에 농촌에서 농사를
짓고 살았었다면 매력적이죠.

00:16:55.602 --> 00:16:59.859
왜? 당시에 농민으로 태어나서는
평생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

00:16:59.959 --> 00:17:04.158
내 이름 앞으로 송곳
하나 꽃을 땅을

00:17:04.258 --> 00:17:07.239
갖지 못하고 죽는 농민들이
대부분 있었거든요.

00:17:07.339 --> 00:17:10.152
그런데 그 사람들한테
뭐를 나눠준다고 합니까?

00:17:10.252 --> 00:17:11.986
땅을 나눠준다는 거잖아요.

00:17:12.086 --> 00:17:14.283
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.

00:17:14.383 --> 00:17:19.291
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20년대 초에
조선에 들어왔는데

00:17:19.391 --> 00:17:22.912
한 3, 4년 만에 불과
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.

00:17:23.012 --> 00:17:29.892
그러면서 전국적인 조직인 1925년에
조선공산당이 나오게 됩니다.

00:17:29.992 --> 00:17:33.206
이 조선공산당이라는
전국 조직이 나오게 되었었는데

00:17:33.306 --> 00:17:40.485
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이

하나 만들어지게 돼요.

00:17:40.585 --> 00:17:45.186
이게 무슨 법이냐면 치안유지법.

00:17:48.563 --> 00:17:51.202
이게 여러분, 우리가 문화
통치할 때 배웠습니다.

00:17:51.302 --> 00:17:54.440
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이
나오게 되면서

00:17:54.540 --> 00:17:56.918
우리나라의 민족 운동을
탄압했다고 하는데

00:17:57.018 --> 00:18:01.856
사실은 민족주의자들보다도
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

00:18:01.956 --> 00:18:05.830
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
게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에요.

00:18:05.930 --> 00:18:09.450
당시 이 치안유지법이 생기고
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걸리면

00:18:09.550 --> 00:18:15.563
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라든가
대처에 들어갔습니다.

00:18:15.663 --> 00:18:19.750
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건 사회주의가
급속도로 확산은 됐지만

00:18:19.850 --> 00:18:21.916
불법 단체가 되어있던 상태였어요.

00:18:22.016 --> 00:18:24.712
그러면 우리는 사회주의
색깔을 살짝 빼고

00:18:24.812 --> 00:18:30.552
뭔가 공식적인 단체로서 활동하고
싶은데,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.

00:18:30.652 --> 00:18:37.028
그때 마침 1926년도에
6.10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.

00:18:37.158 --> 00:18:43.727
3.1 운동은 고종황제가
서거하고 나서

00:18:43.827 --> 00:18:47.910
그게 장례일에 일어났다고
해서 3.1 운동이죠?

00:18:48.010 --> 00:18:52.359

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었던
순종도 1926년도에 서거하세요.

00:18:52.459 --> 00:18:55.926

그리고 나서 사회주의계와
천도교, 학생계가 집중을 해서

00:18:56.026 --> 00:19:00.146

1926년도에 6.10일에
만세 운동을 펼쳤던 것이에요.

00:19:00.246 --> 00:19:02.406

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
확대되지 못했어요.

00:19:02.506 --> 00:19:06.990

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을
갖춘 우리나라 단체가 없었어요.

00:19:07.090 --> 00:19:10.261

그래서 서울 안에서만
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.

00:19:10.361 --> 00:19:12.459

그리고 나서 이 사회주의계 사람들이

00:19:12.559 --> 00:19:16.111

6.10 만세 운동 활동하고
나서 이거 괜찮네?

00:19:16.211 --> 00:19:20.035

한번 할 수 있겠네, 라고
하면서 1927년도에

00:19:20.135 --> 00:19:25.441

당시 1926년, 1927년 오면서
민족주의계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?

00:19:25.541 --> 00:19:30.272

조선민흥회 만들어서 비타협적
민족주의자들이 뭔가 위기감이 있었어요.

00:19:30.372 --> 00:19:33.880

당시에 사회주의계에서는 그 앞에
6.10 만세 운동도 한번 했고

00:19:33.980 --> 00:19:38.787

그다음에 이 조선공산당이라는
사회주의 단체가 불법단체가 되면서

00:19:38.887 --> 00:19:45.571

무엇인가 정당한 합법적인 단체로서
활동하고 싶다는 움직임이 있었겠죠?

00:19:45.671 --> 00:19:47.474

그래서 그 두 계층.

00:19:47.574 --> 00:19:49.243

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

00:19:49.343 --> 00:19:53.217

사회주의 계열이 하나로 연대하는
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.

00:19:53.317 --> 00:19:55.250
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뭐예요?

00:19:55.350 --> 00:19:57.976
간회 간회 신간회예요.

00:19:58.076 --> 00:20:02.113
이거 형광펜, 이거 시험
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.

00:20:02.213 --> 00:20:05.406
여러분, 저 믿으시고 시험
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.

00:20:05.506 --> 00:20:08.258
그런데 그게 있어요.

00:20:09.826 --> 00:20:12.477
요즘 친구들은 또 아닌가?

00:20:12.577 --> 00:20:14.281
요새는 여러분, 뭐 있습니까?

00:20:14.381 --> 00:20:15.734
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.

00:20:15.834 --> 00:20:17.372
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.

00:20:17.472 --> 00:20:22.872
그러면 편지라도 간단히 써서 주고
눈빛도 주고받고 이런 게 있는데

00:20:22.972 --> 00:20:25.494
요즘에는 안 그러나?
이때는 그랬어요.

00:20:25.594 --> 00:20:28.384
사회주의계에서 정우회
선언이라는 걸 해요.

00:20:28.484 --> 00:20:31.871
뭔가 나 너랑 만날 수도
있어, 라고 한 것이죠.

00:20:31.971 --> 00:20:35.020
그러자 민족주의계에서
조선민흥회 만들어서

00:20:35.120 --> 00:20:36.578
사회주의와의 연계를 보여준 것이죠.

00:20:36.678 --> 00:20:39.892
그래서 정우회
선언이라든가 조선민흥회.

00:20:39.992 --> 00:20:42.767
이런 것들은 민족주의계와

사회주의계에서

00:20:42.867 --> 00:20:45.369

뭔가 연대의 신호탄을
알려준 것이었고요.

00:20:45.469 --> 00:20:49.248

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왔었던
게 바로 신간회입니다.

00:20:49.348 --> 00:20:51.863

그리고 신간회가 나왔었던
또 하나의 이유가

00:20:51.963 --> 00:20:53.602

여러분, 우리 지난
시간에 배웠었죠.

00:20:53.702 --> 00:20:56.788

1920년대 중반 때
뭔가 있었다고요?

00:20:56.888 --> 00:21:06.809

중국이 제1차 국공합작을 하게 되면서
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었습니까?

00:21:06.909 --> 00:21:09.149

그렇죠, 민족유일당 운동.

00:21:09.249 --> 00:21:12.648

민족을 하나로 합쳐라.
더이상 이념적으로 나뉘지 마.

00:21:12.748 --> 00:21:14.454

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치는데

00:21:14.588 --> 00:21:16.802

너네는 그것도 못 해?
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.

00:21:16.902 --> 00:21:17.919

이때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요.

00:21:18.019 --> 00:21:21.938

그래서 국외에서는 무슨 통합 운동이 있었다?
3부 통합운동이 있었고

00:21:22.038 --> 00:21:26.829

국내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
신간회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에요.

00:21:26.929 --> 00:21:29.874

그래서 신간회가 시험 문제에
너무 많이 나와요.

00:21:29.974 --> 00:21:32.165

너무 많이 나와.

00:21:32.265 --> 00:21:34.003

이건 여러분, 다 알아두셔야 돼요.

00:21:34.103 --> 00:21:37.038
신간회 활동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.

00:21:37.138 --> 00:21:41.538
신간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
앞서 먼저 구분해두셔야 되는 건

00:21:41.638 --> 00:21:44.610
이 신간회랑 여러분이 많이
헷갈리시는 게 뭐가 있다?

00:21:44.710 --> 00:21:46.472
신민회.

00:21:46.572 --> 00:21:49.194
우리가 배웠었죠?
신민회 언제 나왔습니까?

00:21:49.294 --> 00:21:52.284
1907년에서
1911년에 나왔고요.

00:21:52.384 --> 00:21:54.581
신간회는 1927년에서 31년.

00:21:54.681 --> 00:22:00.013
정확히 20년 차이를 두고 만들어졌고
또 해소되는 게 똑같습니다.

00:22:00.113 --> 00:22:01.426
신민회는 언제요?

00:22:01.526 --> 00:22:06.817
1907년에서 1911년까지
있었던 단체고

00:22:06.917 --> 00:22:12.683
신민회는 애국 계몽운동이었는데 국외에
무장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

00:22:12.783 --> 00:22:15.811
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었죠?

00:22:15.911 --> 00:22:17.697
그게 신민회였다는 거.

00:22:17.797 --> 00:22:22.400
그에 비해서 신간회는 사회주의계와
민족주의계가 연대해서 만들어진

00:22:22.500 --> 00:22:25.018
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었었고

00:22:25.118 --> 00:22:28.688
1920년대에서 30년대
초까지 있었던 단체라는 거.

00:22:28.788 --> 00:22:32.741
이거 반드시 구분해두셔야 됩니다.

00:22:32.841 --> 00:22:34.959

같은 단체 아니에요.

00:22:35.059 --> 00:22:37.534

완전 다른 단체예요.
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.

00:22:37.634 --> 00:22:39.602

하나 더, 이제 가봅시다.

00:22:39.702 --> 00:22:42.806

신간회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은
첫 번째, 뭐라고요?

00:22:42.906 --> 00:22:47.013

민족주의자 안에서 자치론자들이
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.

00:22:47.113 --> 00:22:53.726

당시에 중국의 1차 국공합작으로
인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

00:22:53.826 --> 00:22:55.101

192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.

00:22:55.201 --> 00:22:58.215

너희 민족운동 하려면 하나로
합쳐, 라는 움직임.

00:22:58.315 --> 00:23:00.673

그리고 사회주의가
위축되어있었습니다.

00:23:00.810 --> 00:23:04.034

왜요? 치안유지법에 의해서
불법단체가 됐거든요.

00:23:04.134 --> 00:23:08.000

이런 움직임 가운데 이들이 강령.

00:23:08.100 --> 00:23:11.618

이 강령은 여러분, 보통 주관식
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.

00:23:11.718 --> 00:23:13.504

강령은 뭐가 있었죠?

00:23:13.604 --> 00:23:18.246

민족의 정치적, 경제적 각성을
촉구한다, 이게 1.

00:23:18.346 --> 00:23:20.872

그다음에 2, 민족대단결.

00:23:20.972 --> 00:23:24.344

그다음에 3, 기회주의를
일체 부인한다고 나와 있는데

00:23:24.444 --> 00:23:28.035

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
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?

00:23:28.135 --> 00:23:30.693
맞습니다, 자치론자입니다.

00:23:30.793 --> 00:23:34.334
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,
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

00:23:34.434 --> 00:23:36.304
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23:36.404 --> 00:23:38.974
이들의 활동 한번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3:39.074 --> 00:23:42.339
신간회의 활동은 전국적인
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.

00:23:42.439 --> 00:23:43.720
전국적 지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

00:23:43.820 --> 00:23:45.089
이게 꽤 중요해요.

00:23:45.189 --> 00:23:47.549
왜? 이들은 전국적 조직을
가지고 있었기 때문에

00:23:47.649 --> 00:23:51.896
그들이 하나의 운동을 지원해주게 되면서
전국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

00:23:51.996 --> 00:23:54.292
바로 그 바탕을 가지고 있었고요.

00:23:54.392 --> 00:23:56.986
전국순회를 하면서
강연회를 열었어요.

00:23:57.086 --> 00:24:00.405
그리고 노동자들에 여러분도
단결하셔야 됩니다.

00:24:00.505 --> 00:24:03.652
우리가 단결할 때 오히려 우리의
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

00:24:03.752 --> 00:24:05.289
이런 것들을 강연했었고요.

00:24:05.389 --> 00:24:07.276
농민과 노동자 운동을 지원했죠.

00:24:07.376 --> 00:24:12.621
그래서 소작쟁의라든가 노동쟁의가
1920년대 확실히 늘어나게 되거든요.

00:24:12.721 --> 00:24:15.935
그 중심에 서 있는 단체가
바로 신간회입니다.

00:24:16.035 --> 00:24:18.810

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.

00:24:18.910 --> 00:24:22.034

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줘요.

00:24:22.134 --> 00:24:24.634

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이런 겁니다.

00:24:24.734 --> 00:24:33.108

기차역에서 일본의
후쿠다라는 변태 남학생이 있어요.

00:24:33.208 --> 00:24:39.247

변태 남학생이 당시 조선의 아리따운
여학생 박기옥이라고 하는

00:24:39.347 --> 00:24:44.272

여학생이 지나가고 있는데
희롱을 한 것이죠.

00:24:44.408 --> 00:24:46.560

예쁜데?
이리 와, 같이 놀자.

00:24:46.697 --> 00:24:47.860

이렇게 한 것이죠.

00:24:47.960 --> 00:24:51.978

머리카락 잡고 장난을
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

00:24:52.078 --> 00:24:53.117

여러분, 어떻게 하실래요?

00:24:53.217 --> 00:24:55.905

가만히 있어요?
우리 조선 사람인데?

00:24:56.005 --> 00:24:58.030

우리 조선 여학생이
희롱당하고 있는데?

00:24:58.130 --> 00:25:02.077

마침 그 모습을 그
여학생의 사촌 동생인

00:25:02.177 --> 00:25:05.534

박준채라는 학생이 보면서
바로 주먹을 날립니다.

00:25:05.593 --> 00:25:08.445

이 싸움은 엄청난 패싸움으로
번지게 되었었고요.

00:25:08.486 --> 00:25:12.448

민족적 감정과 함께 그들은
경찰서에 잡혀갔겠죠.

00:25:12.548 --> 00:25:15.237

패싸움 벌였으니까 그럴 수

있지 않습니까?

00:25:15.337 --> 00:25:21.301
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처리
문제에서 우리 민족성을 자극시켜요.

00:25:21.401 --> 00:25:24.514
왜?
일본 학생들은 그냥 방면.

00:25:24.614 --> 00:25:27.847
그리고 조선 학생들에
대해서는 조사라든가

00:25:27.982 --> 00:25:30.051
처벌이 들어오게 되자
그들은 저항합니다.

00:25:30.151 --> 00:25:33.294
이게 말이 되냐, 솔직히 싸운 거
우리 둘 다 잘못된 거 맞아.

00:25:33.394 --> 00:25:36.492
그런데 결과적으로
제기한 거 누구야?

00:25:36.592 --> 00:25:39.266
시발점을 줬던 건 저들 아니야?

00:25:39.366 --> 00:25:44.460
그런데 왜 우리는 조선 학생이라는 이유로
처벌당하고 저들은 그냥 방면이야?

00:25:44.560 --> 00:25:49.140
이게 말이 돼? 라고 하면서 그들이
동맹휴학하면서 저항하게 됩니다.

00:25:49.240 --> 00:25:51.051
그런데 이게 신간회에 알려지고요.

00:25:51.151 --> 00:25:52.994
신간회에는 무슨 조직이 있다고요?

00:25:53.094 --> 00:25:55.144
전국적인 조직을 갖췄었다고 했죠?

00:25:55.244 --> 00:25:58.355
그래서 이 운동이
전국적으로 확산돼요.

00:25:58.455 --> 00:25:59.665
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

00:25:59.765 --> 00:26:03.756
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적으로
확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.

00:26:03.856 --> 00:26:07.064
그 이유가 바로 뭐다?
신간회였었다, 라는 거.

00:26:07.164 --> 00:26:09.611
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.

00:26:09.711 --> 00:26:13.883
그러다가 이제 1931년도에
신간회가 해체됩니다.

00:26:13.983 --> 00:26:16.869
일단 첫 번째,
지도부가 우경화돼요.

00:26:16.969 --> 00:26:20.646
왜 그러냐면, 이렇게 광주 학생의
항일 운동을 지원해주게 되면서

00:26:20.746 --> 00:26:25.877
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
현 지도부들이 잡혀가거든요.

00:26:25.977 --> 00:26:28.701
경찰 쪽에 잡혀가고
그렇게 되다 보니까

00:26:28.801 --> 00:26:38.885
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신간회의
지휘부 쪽에 올라가게 되는데

00:26:38.985 --> 00:26:41.698
그들이 자치론자적 성격을
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.

00:26:41.798 --> 00:26:43.155
지도부가 우경화되고요.

00:26:43.255 --> 00:26:47.075
그리고 무엇보다 코민테른의
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

00:26:47.175 --> 00:26:50.708
이 코민테른이라는 게 뭐냐면

00:26:50.808 --> 00:26:54.517
사회주의는 전 세계를
하나의 조직으로 묶니다.

00:26:54.617 --> 00:26:56.791
그런데 당시에 사회주의의
가장 큰 형은 누구였어요?

00:26:56.891 --> 00:26:58.157
러시아였고요.

00:26:58.257 --> 00:27:03.243
러시아가 하나의 코민테른에
대한 명령 체계로 만들었던 게

00:27:03.343 --> 00:27:05.189
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이잖아요.

00:27:05.289 --> 00:27:06.805
그게 소련이잖아요.

00:27:06.905 --> 00:27:09.273

물론 지금은 다 분리돼서
그냥 러시아가 됐고

00:27:09.373 --> 00:27:11.532

나머지가 다 독립국가로 나왔었지만

00:27:11.632 --> 00:27:15.251

어쨌든 거기에서 중앙이 되었었던

00:27:15.351 --> 00:27:21.094

당시의 소련의 사회주의,
공산주의 지도부에서

00:27:21.194 --> 00:27:24.887

내려왔었던 명령을
코민테른이라고 합니다.

00:27:24.987 --> 00:27:26.924

이 신간회가 나오기 전에는

00:27:27.024 --> 00:27:32.417

너희 각 지역의 민족주의계들과 연계할 수
있으면 연계해, 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.

00:27:32.517 --> 00:27:35.834

그런데 이게 30년대를 넘어오면서

00:27:35.934 --> 00:27:38.048

사회주의계에서 지령이
다르게 내려옵니다.

00:27:38.148 --> 00:27:43.861

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노선을
걸어야 되겠어, 라고 하게 되면서

00:27:44.005 --> 00:27:47.295

사회주의계에 큰 흐름이
이제는 바뀌게 돼요.

00:27:47.395 --> 00:27:49.489

코민테른의 노선이 변경됩니다.
어떻게?

00:27:49.589 --> 00:27:53.012

이게 민족주의계랑 더이상 연대하지
마라, 라고 하게 되면서

00:27:53.112 --> 00:27:57.328

1931년도에 이것이
해체되었었다는 거.

00:27:57.428 --> 00:27:58.140

이 신간회입니다.

00:27:58.240 --> 00:27:59.847

여러분, 신간회는 전체가
너무 중요해요.

00:27:59.947 --> 00:28:01.359

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.

00:28:01.459 --> 00:28:02.311
여기가 나오죠?

00:28:02.411 --> 00:28:03.922
신간회 강령 한번 보겠습니다.

00:28:04.022 --> 00:28:06.760
1. 우리는 정치적
경제적 각성을 촉구함.

00:28:06.860 --> 00:28:08.668
2.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.

00:28:08.768 --> 00:28:13.137
여기서 단결은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
단결을 말하는 것이겠죠?

00:28:13.237 --> 00:28:15.831
3. 우리는 기회주의를
일체 부인함.

00:28:15.931 --> 00:28:19.710
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
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?

00:28:19.810 --> 00:28:26.228
자치론자들,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을
이야기한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28:26.328 --> 00:28:27.684
코민테른의 노선 변화입니다.

00:28:27.784 --> 00:28:31.703
코민테른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
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

00:28:31.803 --> 00:28:36.338
제1차 국공 합작이 실패하자 식민지에서
진행되던 민족 협동 전선.

00:28:36.438 --> 00:28:38.137
이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게 뭐죠?

00:28:38.237 --> 00:28:42.869
그 지역 안에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뭔가
연대해, 협동해, 라는 것이었는데

00:28:42.969 --> 00:28:46.326
해체를 지시하고 다시 계급
투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

00:28:46.426 --> 00:28:47.783
조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.

00:28:47.883 --> 00:28:53.702
그러면서 신간회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
배경이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

00:28:53.802 --> 00:28:54.655

이게 뭐라고요?

00:28:54.755 --> 00:28:56.863

그래서 여러분,
이 순서도 많이 나와요.

00:28:56.963 --> 00:29:01.985

신간회가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게
1926년도에 6.10 만세 운동이고

00:29:02.085 --> 00:29:04.311

그다음에 신간회가
27년도에 등장하고

00:29:04.411 --> 00:29:08.013

이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던 게 뭐다?
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.

00:29:08.113 --> 00:29:12.379

일본인 남학생이 우리 한국의
여학생을 희롱했었고요.

00:29:12.479 --> 00:29:15.214

이것으로 인해서 집단 싸움이
벌어지게 되었었는데

00:29:15.314 --> 00:29:19.136

한국 학생들만 처벌하려고
하자 그들은 저항했었고

00:29:19.236 --> 00:29:22.358

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
지원해주었었다.

00:29:22.458 --> 00:29:26.365

그런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
전국으로 확산되었었다.

00:29:26.465 --> 00:29:27.619

퀴즈 하나 내볼까요?

00:29:27.719 --> 00:29:31.284

여러분, 어린이날이 언제입니까?
5월 5일.

00:29:31.384 --> 00:29:32.735

우리는 다 알아, 우리는 쉬잖아.

00:29:32.835 --> 00:29:34.327

어버이날은?
5월 8일.

00:29:34.427 --> 00:29:40.151

우리가 쉬진 않지만,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
선물도 해드리고 해야 되니까.

00:29:40.251 --> 00:29:41.514

여러분, 학생이죠?

00:29:41.614 --> 00:29:43.461

학생의 날은 언제입니까?

00:29:43.561 --> 00:29:45.491
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아.

00:29:45.591 --> 00:29:48.251
왜? 첫 번째 문제는
안 쉬어서 그래요.

00:29:48.351 --> 00:29:51.305
그래서 저는 이거 강력하게
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
00:29:51.405 --> 00:29:56.128
학생의 날이 언제냐면
11월 3일입니다.

00:29:56.228 --> 00:29:58.969
저는 역사를 가르치는
사람이니까 알죠.

00:29:59.069 --> 00:30:01.384
이 11월 3일이 무엇을
기준으로 한 거다?

00:30:01.484 --> 00:30:03.599
광주학생 항일운동을
기준으로 한 거예요.

00:30:03.699 --> 00:30:06.979
이날 쉬어야 된다,
강력히 추천합니다.

00:30:07.079 --> 00:30:10.193
왜? 어린이날도 쉬는데 왜
우리 학생의 날은 안 쉽니까?

00:30:10.293 --> 00:30:13.561
이게 말이 됩니까?
그렇죠?

00:30:13.661 --> 00:30:18.505
저도 하루 더 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
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.

00:30:18.605 --> 00:30:19.262
됐고요.

00:30:19.362 --> 00:30:21.492
대중적 사회운동으로 한번
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0:21.592 --> 00:30:24.584
일단 신간회가 가장 대표적인
사회 운동이었었고요.

00:30:24.684 --> 00:30:27.767
그 외에도 이 소년운동
한번 보겠습니다.

00:30:27.867 --> 00:30:30.178
천도교 소년회에서 시작되었고요.

00:30:30.278 --> 00:30:35.477
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날,
잡지(어린이) 같은 것을 만드는데

00:30:35.577 --> 00:30:40.039
이 소년운동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
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입니까?

00:30:40.139 --> 00:30:44.056
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?

00:30:44.615 --> 00:30:47.662
5월 5일, 이날 때문에 여러분도
어린이일 때 잘 쉬었죠?

00:30:47.762 --> 00:30:52.993
방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
이게 천도교 소년회죠?

00:30:53.130 --> 00:30:57.497
천도교가 동학에서 바뀐 거거든요.

00:30:57.597 --> 00:31:03.432
이 당시에 천도교의 힘을 가지고
있던 사람이 손병희예요.

00:31:03.532 --> 00:31:07.205
손병희의 사위가 바로
방정환 선생님입니다.

00:31:07.305 --> 00:31:08.422
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

00:31:08.522 --> 00:31:09.351
청년운동.

00:31:09.451 --> 00:31:12.808
조선 청년 총동맹 같은 게
1924년도에 만들어졌다.

00:31:12.980 --> 00:31:15.025
이런 그냥 그렇구나
하고 가는 것이고요.

00:31:15.125 --> 00:31:19.774
사실 여기서 시험 문제에 되게
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개예요.

00:31:19.874 --> 00:31:21.516
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.

00:31:21.616 --> 00:31:22.897
첫 번째, 여성운동.

00:31:22.997 --> 00:31:24.358
신간회 자매단체입니다.

00:31:24.458 --> 00:31:28.581
뭔가 신간회는 남성 중심의
민족적 운동이었는데

00:31:28.681 --> 00:31:30.264

당시에 여성들도 각성하게 돼요.

00:31:30.364 --> 00:31:35.679

뭐야 우리? 나라의 절반은 여성인데
왜 여성에 대한 권리라든가

00:31:35.779 --> 00:31:37.532

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
사람은 전혀 없어?

00:31:37.632 --> 00:31:39.268

우리 여자들도 모여!
이렇게 된 것이죠.

00:31:39.368 --> 00:31:42.169

그래서 만들어졌던 게
바로 근우회입니다.

00:31:42.269 --> 00:31:42.923

이거 중요합니다.

00:31:43.023 --> 00:31:44.808

여성 운동하면 이거 자주 나옵니다.

00:31:44.908 --> 00:31:47.959

여성의 권리, 이렇게도 나오고

00:31:48.059 --> 00:31:51.819

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모태,
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31:51.919 --> 00:31:53.476

여성 운동으로는 근우회.

00:31:53.576 --> 00:31:58.594

이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였었다,
라는 거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31:58.694 --> 00:32:03.067

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
나오는 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.

00:32:03.167 --> 00:32:04.805

형평운동은 백정.

00:32:04.905 --> 00:32:08.299

여러분, 고려 시대 백정은
일반민이라고 했었고요.

00:32:08.399 --> 00:32:13.127

조선 시대 백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?
도축업자들을 이야기합니다.

00:32:13.227 --> 00:32:20.544

당시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
이 동물의 목숨을

00:32:20.644 --> 00:32:26.068

죽이면서 피를 많이 보는 그런 도축업자들,

백정들을 상당히 천대했었어요.

00:32:26.168 --> 00:32:31.723

그런데 문제는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없어집니까?

00:32:31.823 --> 00:32:33.824

신분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?

00:32:33.924 --> 00:32:36.317

그런데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

00:32:36.417 --> 00:32:42.487

사회적인 냉대나 차별은 여전히 있었어요, 30년이 지났어도.

00:32:42.587 --> 00:32:44.550

그런데 당시에 백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.

00:32:44.650 --> 00:32:49.786

사회적으로 차별해도 맞아, 사회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냐.

00:32:49.886 --> 00:32:52.051

그러고 그들은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

00:32:52.151 --> 00:33:01.120

문제는 이 백정들의 자식들, 아이들이 주변에 학교 입학할 거부당해요.

00:33:01.220 --> 00:33:05.769

왜요? 아니, 뭐야 백정 자식이랑 우리 자식이랑 같이 학교에 다니라고?

00:33:05.869 --> 00:33:07.915

하지 마, 너네들 학교 다니지 말게 해.

00:33:08.015 --> 00:33:12.063

무슨 백정 자식이 소나 닭만 잘 잡으면 되지, 무슨 학교래.

00:33:12.163 --> 00:33:14.089

이랬던 것이죠.

00:33:14.189 --> 00:33:18.503

여러분,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부모님들 자존심 건드린 거 아닙니까?

00:33:18.603 --> 00:33:23.175

야, 너희가 먹는 돼지고기, 삼겹살 그거 다 내가 잡아서 먹는 거잖아.

00:33:23.275 --> 00:33:26.101

그런데 내 자식 공부도 못 시켜?

00:33:26.201 --> 00:33:27.641

이게 말이 돼?
따져볼까?

00:33:27.741 --> 00:33:31.034

법적으로 너랑 나랑 차별이
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?

00:33:31.167 --> 00:33:32.903

돈도 요새는 더 많이 버는구먼.

00:33:33.003 --> 00:33:38.741

그런데 뭐가 문제야? 라고
하면서 저울처럼 형평한.

00:33:38.841 --> 00:33:41.662

평등한 세상을 만들자, 라는
게 바로 형평운동이에요.

00:33:41.762 --> 00:33:42.986

그러니까 사회적 차별.

00:33:43.086 --> 00:33:47.628

누구들의?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
폐지를 주장하면서 나왔었고요.

00:33:47.728 --> 00:33:52.620

이거는 진주 지역에서 조선
형평사라는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고

00:33:52.720 --> 00:33:57.516

이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대되는
그런 모습이 있었습시다.

00:33:57.616 --> 00:34:03.338

이런 사회적 냉대라든가 이런
것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.

00:34:03.438 --> 00:34:07.399

이런 운동으로 최근에
볼 수 있었던 것은

00:34:07.499 --> 00:34:11.032

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들이
미투운동 벌이잖아요.

00:34:11.132 --> 00:34:14.858

남성 중심의 사고 안에서
본인들이 알게 모르게

00:34:14.958 --> 00:34:21.070

성적으로 희롱당하고 추행당하고
폭행을 당했었던 것들이

00:34:21.170 --> 00:34:23.662

나도 그랬다.
너가 그랬잖냐, 라고 하면서

00:34:23.762 --> 00:34:28.037

그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반적인 운동을
펼치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.

00:34:28.137 --> 00:34:34.347

저도 남성이지만 알게 모르게 약간은

불쾌함을 준 적은 없었나,

00:34:34.491 --> 00:34:36.942

저도 다시 한번
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.

00:34:37.042 --> 00:34:37.817

이런 운동.

00:34:37.917 --> 00:34:41.898

뭔가 이 대중적으로 확대되면서
나타나는 게 정말로 힘이 있거든요.

00:34:41.998 --> 00:34:44.755

그런데 사실은 미투 운동이 전
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

00:34:44.855 --> 00:34:49.796

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게 이렇게
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

00:34:49.896 --> 00:34:53.462

되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
많이 있더라고요.

00:34:53.562 --> 00:34:59.236

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형평운동을
준비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.

00:34:59.336 --> 00:35:01.611

조금 더 가보겠습니다.

00:35:01.711 --> 00:35:04.023

여기에 근우라고 쓰여 있죠?

00:35:04.158 --> 00:35:05.727

이게 근우의 포스터고요.

00:35:05.827 --> 00:35:07.135

이게 어린이날 포어입니다.

00:35:07.235 --> 00:35:11.470

제시된 자료는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
여성 단체인 근우회의 회지 근우와

00:35:11.570 --> 00:35:15.742

천도교 어린이회에서
제정한 어린이날의 포어이다.

00:35:15.842 --> 00:35:21.068

1920년대에 국내에서는 청년, 학생,
농민, 노동자, 여성, 소년, 백정 등이

00:35:21.168 --> 00:35:25.474

일제의 식민 지배와 사회적
차별 등에 대항하여

00:35:25.574 --> 00:35:30.382

다양한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는
거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35:30.482 --> 00:35:32.111

여러분, 이 포스터는
정말 중요합니다.

00:35:32.211 --> 00:35:35.924

정말 많이 나와요,
꼭 기억해두세요.

00:35:36.024 --> 00:35:38.482

형평사 대회 홍보 포스터입니다.

00:35:38.582 --> 00:35:40.279

형평이라고 쓰여 있죠?

00:35:40.379 --> 00:35:45.695

형평사는 파업과 소작쟁의에
참가하는 등 다른 분야의 단체들과

00:35:45.795 --> 00:35:48.275

협력하면서 사회 운동 활성화에도

00:35:48.375 --> 00:35:52.775

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
봐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35:52.875 --> 00:35:56.677

이제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
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5:56.777 --> 00:35:58.155

일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.

00:35:58.255 --> 00:36:02.857

아직도 이 21세기 한국에서도
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

00:36:02.957 --> 00:36:10.099

솔직히 일본이 왔다 가서 우리나라가
발전했지,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놓은

00:36:10.247 --> 00:36:13.473

당시의 일제 사상이 지금도
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.

00:36:13.573 --> 00:36:17.043

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?
식민사관이라고 하죠?

00:36:17.180 --> 00:36:21.297

그중에서도 그들이 우리나라
것을 많이 왜곡해놓습니다.

00:36:21.397 --> 00:36:24.739

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
움직임이 있었어요.

00:36:24.839 --> 00:36:28.084

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큰
조선사라는 책을 만듭니다.

00:36:28.184 --> 00:36:29.725

한국사를 왜곡한 거예요.

00:36:29.825 --> 00:36:34.094
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들이 주장했던
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

00:36:34.194 --> 00:36:35.702
대표적인 게 당파성론.

00:36:35.802 --> 00:36:40.132
조선사람들, 너네한테 말하라고 하면
너희 당파 저서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.

00:36:40.232 --> 00:36:42.957
그러니까 너네는 우리 지배를
받아야만 해, 라고 주장하는데요.

00:36:43.057 --> 00:36:46.550
여러분, 이거는 사실
지금 통용되지 않습니다.

00:36:46.650 --> 00:36:47.749
왜요?

00:36:47.849 --> 00:36:49.218
생각해보세요.

00:36:49.318 --> 00:36:51.157
당파라는 게 뭘니까?

00:36:51.257 --> 00:36:53.901
현대민주정치, 정당정치의
효시 아닙니까?

00:36:54.001 --> 00:36:57.710
만약에 이 당파성론이 문제
된다면 웬만한 유럽에 있는

00:36:57.810 --> 00:37:00.136
그들의 정치 시스템이
앞서 있었다는 국가들보다

00:37:00.236 --> 00:37:02.433
우리나라의 정당 시스템이
먼저 있었던 거야.

00:37:02.533 --> 00:37:03.342
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져.

00:37:03.442 --> 00:37:05.744
일본 애들이 주장하다가
궁색해져요, 이걸.

00:37:05.844 --> 00:37:10.118
그래서 요새는 당파, 당짓기 했다,
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.

00:37:10.218 --> 00:37:15.522
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
그러셨던 분이 계세요.

00:37:15.622 --> 00:37:19.603

당시 선생님 중에 보면
조선 사람은 맞아야 돼.

00:37:19.703 --> 00:37:21.352

이러면서 때리시던 분들이 있어.

00:37:21.452 --> 00:37:23.313

이게 대표적인 식민사관이에요.

00:37:23.413 --> 00:37:25.795

여러분, 그런 말 하지 마세요.

00:37:25.895 --> 00:37:27.047

되게 안 좋은 말이야.

00:37:27.193 --> 00:37:30.193

맞아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,
맞기 싫으니까 하는 거지.

00:37:30.293 --> 00:37:31.845

왜 조선 사람이라고 맞아야 됩니까?

00:37:31.945 --> 00:37:36.131

이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
했던 말이 구전돼서

00:37:36.231 --> 00:37:37.256

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.

00:37:37.356 --> 00:37:38.910

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.

00:37:39.010 --> 00:37:40.981

한국 사람들은 뭐만 하면

00:37:41.081 --> 00:37:45.969

우리나라 민족적인 그러한 것을
되게 비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

00:37:46.069 --> 00:37:47.107

그런 거 하지 마세요.

00:37:47.207 --> 00:37:48.652

전 정말 싫어해요.

00:37:48.752 --> 00:37:53.456

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어둔
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.

00:37:53.556 --> 00:37:56.147

대표적인 건 그런 게 있어요.

00:37:56.247 --> 00:37:57.418

백제라는 단어를 들으면

00:37:57.518 --> 00:38:01.329

여러분은 어떤 단어가
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?

00:38:01.429 --> 00:38:04.690

저는 근초고왕이 제일
먼저 생각나거든요.

00:38:04.790 --> 00:38:08.108
아니면 백제 금동대향로, 이런
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

00:38:08.208 --> 00:38:12.882
초등학교 학생들한테
인식조사를 한번 해봤더니

00:38:12.982 --> 00:38:15.968
압도적으로 많이 나온
단어가 뭔지 아세요?

00:38:16.068 --> 00:38:18.982
의자왕 내지는 삼천궁녀입니다.

00:38:19.082 --> 00:38:23.553
백제가 망했었던 건 당대
왕이 환락에 빠져서

00:38:23.653 --> 00:38:30.362
여자들 끼고 놀다가 그러다 망한 거야,
라고 일본 애들이 심어놓은 거예요.

00:38:30.462 --> 00:38:36.499
그런데 여러분, 삼천궁녀에
대한 역사적 근거 있습니까? 없습니다.

00:38:36.599 --> 00:38:38.364
아무것도 없어요.

00:38:38.464 --> 00:38:40.682
그리고 그거 완전 다 거짓입니다.

00:38:40.782 --> 00:38:42.668
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.

00:38:42.768 --> 00:38:45.424
사료적 근거도 없고 당대
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고

00:38:45.524 --> 00:38:51.024
그런데 뭔가 우리가 마치 그것이
사실인냥 그냥 믿어버려.

00:38:51.124 --> 00:38:53.488
몇 번 TV 같은
데서 보고 이러니까.

00:38:53.588 --> 00:38:55.856
TV 방송 프로그램도
문제가 있습니다.

00:38:55.956 --> 00:38:58.467
그건 완전 있을 수
없는 이야기예요.

00:38:58.567 --> 00:39:02.929
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글도 많이

쓰고 해서 말씀드릴 건 많이 있지만

00:39:03.051 --> 00:39:03.950
대충 넘어갑시다.

00:39:04.050 --> 00:39:09.352
어쨌든 지금 우리 인식에도
잘못되어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

00:39:09.452 --> 00:39:10.414
당파성론도 마찬가지로요.

00:39:10.549 --> 00:39:12.157
타율성론.
타율성론이 뭐니까?

00:39:12.257 --> 00:39:15.050
조선 너희 나라를 보니까
너희는 바로 서질 못했어.

00:39:15.150 --> 00:39:17.410
다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가

00:39:17.510 --> 00:39:19.570
주변 나라로부터 영향을
받았어, 라고 하는데

00:39:19.670 --> 00:39:22.033
이건 일본인들이 주장하다가
요새는 말을 잘 안 해요.

00:39:22.157 --> 00:39:24.444
왜요?
말했다가는 더 궁색해져.

00:39:24.544 --> 00:39:28.825
왜?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준
나라가 백제거든요.

00:39:28.925 --> 00:39:32.292
그러니까 타율성론은 우리보다
자기들이 더 심한 거야.

00:39:32.392 --> 00:39:33.939
이거는 좀 민망해.

00:39:34.039 --> 00:39:39.283
그나마 일본 애들이 가장 많이
주장했었던 게 정체성론이에요.

00:39:39.383 --> 00:39:42.953
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우리가
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다.

00:39:43.053 --> 00:39:46.126
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
사실은 그는 역사학자입니다.

00:39:46.226 --> 00:39:50.218
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
보편적인 역사가 있다.

00:39:50.318 --> 00:39:52.375
이게 체계적으로 발전해오게 되는데

00:39:52.475 --> 00:39:55.818
너희는 이 중세가 없어.
중세 부재설이야.

00:39:55.918 --> 00:39:57.903
그러니까 너희 역사는
정체되어있었는데

00:39:58.003 --> 00:40:01.324
우리 일본이 너희를 지배하면서
너희는 중세를 건너뛰고

00:40:01.424 --> 00:40:03.433
근대로 바로 오게 되었던 거야.

00:40:03.533 --> 00:40:06.565
그러니까 너희 우리한테
고마워해야지, 라는 것이었는데요.

00:40:06.665 --> 00:40:10.369
이게 역사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
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.

00:40:10.469 --> 00:40:12.653
그런데 이것이 극복됩니다.

00:40:12.753 --> 00:40:14.848
잠시 뒤에 한 번 말씀드릴게요.

00:40:14.948 --> 00:40:20.786
이러한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응했었던
당시 한국사 연구가 있었습니다.

00:40:20.944 --> 00:40:23.129
첫 번째, 민족주의
사학자들이 있었죠?

00:40:23.229 --> 00:40:25.512
민족의 전통과 자주성을
중요하게 여겼습니다.

00:40:25.612 --> 00:40:28.354
대표적인 분, 바로 박은식.

00:40:28.454 --> 00:40:30.841
조선 광문회 만드셨고요, 한국통사.

00:40:30.941 --> 00:40:33.196
이 박은식과 신채호는
여러분, 제가 구분해드렸죠?

00:40:33.296 --> 00:40:38.383
박은식은 주로 현대사 파트 쪽, 신채호
선생님은 주로 고대사 파트 쪽에서.

00:40:38.483 --> 00:40:42.325
조선 상고사도 있었고요.

00:40:42.425 --> 00:40:48.038
특히 이 신채호 선생님께서 상당히
중요하게 여겼었던 사건이

00:40:48.138 --> 00:40:51.112
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었다는 거.

00:40:51.212 --> 00:40:57.050
거기다가 독사신론, 이런 책을 쓰면서
민족주의의 시초를 알렸었다는 거.

00:40:57.150 --> 00:41:00.562
정인보 선생의 조선사연구,
라는 책도 있었고요.

00:41:00.662 --> 00:41:02.858
그다음에 실증사학 먼저 가겠습니다.

00:41:02.958 --> 00:41:06.042
실증사학이라는 건
랑케 사학이라고 하거든요.

00:41:06.142 --> 00:41:07.994
랑케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

00:41:08.094 --> 00:41:10.470
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
된다, 그렇게 이야기해요.

00:41:10.570 --> 00:41:12.106
그런데 이걸 진짜 이렇게
죽이라는 게 아니죠?

00:41:12.206 --> 00:41:14.106
역사가는 역사를 서술할 때

00:41:14.206 --> 00:41:19.807
자기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에
근거해서만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.

00:41:19.907 --> 00:41:25.284
절저하게 고증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
서술해야 된다, 라고 주장했던 것이고

00:41:25.384 --> 00:41:27.652
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진단학회.

00:41:27.752 --> 00:41:32.578
손진태라든가 이병도 같은
사람들로 이어졌습니다.

00:41:32.678 --> 00:41:38.438
그리고 이 정체성론을 극복했던
게 바로 사회경제 사학이에요.

00:41:38.538 --> 00:41:42.541
아, 너희 지금 세계사에 보편적인 역사
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야?

00:41:42.641 --> 00:41:45.718

오케이,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
근거해줄게, 라고 하면서

00:41:45.818 --> 00:41:50.474
백남운이라는 분이 조선
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씁니다.

00:41:50.574 --> 00:41:53.563
이 책에서 뭐라고 하나면
일본이 주장했었던

00:41:53.663 --> 00:41:56.888
우리 조선의 역사가
정체되어있었다고?

00:41:56.988 --> 00:42:01.537
오케이, 나는 너의 그러한 문제
제기 정확히 받아들이겠어.

00:42:01.637 --> 00:42:03.845
그런데 나는 정체되지
않았음을 보여주지.

00:42:03.945 --> 00:42:06.702
우리나라도 근대에
싹이 자라고 있었어.

00:42:06.802 --> 00:42:08.124
근대 하면 자본주의지?

00:42:08.224 --> 00:42:12.069
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우리는
자라고 있었어, 라고 하면서

00:42:12.169 --> 00:42:16.579
이 책에서 완벽하게
정체성론을 극복해냅니다.

00:42:16.679 --> 00:42:20.331
선생님, 그 정도의 역사면 백남운
선생님 우리가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

00:42:20.467 --> 00:42:21.854
왜 이렇게 못 들었죠?

00:42:21.954 --> 00:42:25.277
우리나라 역사는 참 아쉬운
게 운동을 열심히 하셨지만

00:42:25.377 --> 00:42:29.741
이분들이 약간 사회주의
사상에 영향이 있었거나

00:42:29.841 --> 00:42:32.544
마지막에 북에 가서
돌아가셨다고 하면

00:42:32.644 --> 00:42:34.505
역사적인 평가가 제대로
이루어지지 않아요.

00:42:34.605 --> 00:42:37.010

백남운 선생도 나중에
북에 가서 돌아가세요.

00:42:37.110 --> 00:42:42.010

그리고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
한국역사연구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

00:42:42.110 --> 00:42:45.237

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
한국사를 보면

00:42:45.337 --> 00:42:47.425

조선 후기에 우리의
문화가 발전했다.

00:42:47.525 --> 00:42:49.897

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뭐다?
경제가 발전했다.

00:42:49.997 --> 00:42:53.418

경제가 발전했었던 건 상품
화폐 경제가 많이 발달했었는데

00:42:53.518 --> 00:42:56.016

그걸로 광업도 발달했었고
대동법 시행 이후

00:42:56.116 --> 00:42:59.953

공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상품화폐
경제가 발전했었다, 이게 있죠?

00:43:00.053 --> 00:43:03.014

이게 괜히 중요하다고
여기는 게 아니에요.

00:43:03.114 --> 00:43:03.987

이게 다 뭐야?

00:43:04.087 --> 00:43:06.275

조선 사회경제사에서 우리나라 안에서

00:43:06.375 --> 00:43:11.624

자본주의의 싹이 자생적으로 자라고
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글이에요.

00:43:11.724 --> 00:43:15.274

지금 우리 한국사 책이
대부분 다

00:43:15.374 --> 00:43:19.146

이 백남운 선생님이
주장했었던 것을 근거로써

00:43:19.246 --> 00:43:23.055

증명해주고 있는 게 지금의
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예요.

00:43:23.155 --> 00:43:24.158

참 중요한 분이죠.

00:43:24.258 --> 00:43:25.380
이분이 뭘 극복해냈다?

00:43:25.480 --> 00:43:29.381
정체성론을 극복했었다는 거 꼭
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43:29.481 --> 00:43:32.904
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문화
수호하면 글자 아십니까?

00:43:33.004 --> 00:43:35.739
국어 연구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43:35.869 --> 00:43:39.542
국문연구소라는 연구소가
1907년에 있었습니다.

00:43:39.642 --> 00:43:44.825
그리고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
1921년도에 조선어연구회라고 있어요.

00:43:44.925 --> 00:43:47.292
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

00:43:47.392 --> 00:43:52.076
조선어연구회 활동과 조선어 학회
활동이 구분되시면 좋겠습니다.

00:43:52.176 --> 00:43:57.336
조선어연구회는 1921년도에
시작됐고요.

00:43:57.436 --> 00:43:59.127
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갸날.

00:43:59.227 --> 00:44:01.448
이 가갸날이 지금의
뭐로 나왔을까요?

00:44:01.548 --> 00:44:02.783
한글날입니다.

00:44:02.883 --> 00:44:05.649
그다음에 한글이라는 잡지.

00:44:06.864 --> 00:44:08.292
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.

00:44:08.392 --> 00:44:11.855
조선어연구회는 가갸날
그다음에 한글이라는 잡지.

00:44:11.955 --> 00:44:14.922
그런데 이 가갸날은 지금의 뭐다?
한글날이다, 라는 거.

00:44:15.022 --> 00:44:18.195
그러고 나서 1931년도에
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집니다.

00:44:18.295 --> 00:44:22.581
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
제정했구요.

00:44:22.681 --> 00:44:24.811
표준어도 제정했습니다.

00:44:24.911 --> 00:44:26.834
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.

00:44:26.934 --> 00:44:29.764
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어요.

00:44:29.864 --> 00:44:32.976
우리말 큰 사전이 완성되었던 건
6.25 전쟁 이후거든요.

00:44:33.076 --> 00:44:37.439
그런데 이때부터 시도하고
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.

00:44:37.539 --> 00:44:42.074
그래서 보통 이 파트가 나오면 아마
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울 텐데요.

00:44:42.174 --> 00:44:45.619
조선어연구회에서는 한글날과
한글이라는 잡지.

00:44:45.719 --> 00:44:48.765
그다음에 조선어 학회에서는
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?

00:44:48.865 --> 00:44:50.325
사전 만들고 이런 건
다 이때 했어요.

00:44:50.425 --> 00:44:56.485
한글 맞춤법 통일안, 표준어 제정,
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를 했었으나

00:44:56.585 --> 00:45:00.277
1942년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

00:45:00.377 --> 00:45:05.370
이 조선어 학회가 와해되었었다, 라는
것도 하나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45:05.470 --> 00:45:07.373
이게 바로 한글이라는 잡지죠.

00:45:07.473 --> 00:45:09.544
한글이라는 잡지 어디서
만들어졌다고요?

00:45:09.644 --> 00:45:14.980
조선어연구회에서 등장했었습니다.

00:45:15.080 --> 00:45:16.978
그다음에 조선어 학회
사건 한번 말씀드릴게요.

00:45:17.078 --> 00:45:19.512

함흥에서 기차를 타고
귀가하던 여학생들이

00:45:19.612 --> 00:45:23.668

우리말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로
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벌어졌다.

00:45:23.768 --> 00:45:28.489

일제 경찰은 검거된 학생의 집을
수색하여 일기장을 발견하였는데

00:45:28.589 --> 00:45:31.349

그 일기에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이

00:45:31.449 --> 00:45:35.578

일본어를 사용한 학생을 꾸짖었다는
내용이 적혀 있었다.

00:45:35.678 --> 00:45:41.198

당시 정태진은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말
큰사전 편찬 작업을 맡고 있었는데

00:45:41.298 --> 00:45:46.634

일제는 이를 구실로 조선어 학회
회원들을 체포하고 탄압하였다.

00:45:46.734 --> 00:45:52.688

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
다 일본어만 썼어야 되거든요.

00:45:52.788 --> 00:45:58.493

그런데 우리말, 조선말로 대화를 나누었다는
혐의로 경찰서에 체포됐으니까

00:45:58.593 --> 00:46:04.255

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
시대에 살고 있습니까?

00:46:04.355 --> 00:46:06.120

종교 한번 보겠습니다.

00:46:06.220 --> 00:46:10.434

종교도 역시 그들이 다
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면서

00:46:10.534 --> 00:46:13.290

민족의 고유적인 정신을
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.

00:46:13.390 --> 00:46:15.914

첫 번째, 천도교.

00:46:16.014 --> 00:46:17.110

소년운동, 기억나시죠?

00:46:17.210 --> 00:46:21.176

천도교가 어디서 왔었다?
동학에서 갈래로 내려왔던 게 천도교고요.

00:46:21.276 --> 00:46:24.624

개벽이라든가 신여성 같은
잡지를 간행하기도 했었고요.

00:46:24.724 --> 00:46:27.340

이 중에서 종종 나오는
건 사실 대중교입니다.

00:46:27.440 --> 00:46:32.378

대중교는 단군숭배 신앙인데 이게
중광단이라는 조직이 북로군정서군.

00:46:32.478 --> 00:46:33.744

우리 지난 강의에서 했었죠?

00:46:33.844 --> 00:46:37.263

북로군정서군은 어떤 대첩에
주력 부대였었다?

00:46:37.363 --> 00:46:38.428

청산리전투.

00:46:38.528 --> 00:46:42.868

청산리대첩의 주력 부대였었다, 라는
거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46:42.968 --> 00:46:48.266

불교 같은 경우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
조선불교 유신회 등을 조직하면서

00:46:48.366 --> 00:46:50.199

불교의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.

00:46:50.299 --> 00:46:54.410

원불교 같은 경우는 박중빈이라는
인물이 창시했었는데

00:46:54.510 --> 00:46:58.008

개간이라든가 저축 운동
같은 것들을 펼쳤습니다.

00:46:58.108 --> 00:47:00.373

당시 기독교, 개신교라고도 하죠.

00:47:00.473 --> 00:47:01.458

주로 교육.

00:47:01.558 --> 00:47:06.559

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션스쿨이라든가

00:47:06.659 --> 00:47:08.827

대학교들 이런 데보면
미션이 꽤 많죠.

00:47:08.927 --> 00:47:11.547

연세대도 그렇고요,
숭실대도 그렇고요.

00:47:11.647 --> 00:47:14.859

명지대도 그렇고요,
이화여대도 그렇고요.

00:47:14.959 --> 00:47:19.010
다 그런 데가 교육과 관련된 거나
의료, 문화, 이런 것도 많았고요.

00:47:19.110 --> 00:47:20.744
천주교에서는 주로 사회사업.

00:47:20.844 --> 00:47:23.812
고아원이라든가
경향이라는 경향신문이

00:47:23.912 --> 00:47:27.989
초기에는 다 천주교 계열의
신문들이었습니다.

00:47:28.089 --> 00:47:29.520
그다음에 농민 운동 한번 볼까요?

00:47:29.620 --> 00:47:34.457
농민 운동하면 역시 신간회
기억해두셔야 되겠죠?

00:47:34.557 --> 00:47:38.340
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이라든가
20년대 산미 증식계획이 오게 되면서

00:47:38.440 --> 00:47:41.280
농민들의 처지가 가면
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.

00:47:41.380 --> 00:47:42.488
소작농은 증가했고요.

00:47:42.588 --> 00:47:46.291
도시 빈민도 증가했고 해외로
이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는데

00:47:46.391 --> 00:47:49.504
그래서 그들도 뭉치게 됩니다.

00:47:49.604 --> 00:47:52.271
그래서 나왔던 게 뭐다?
소작쟁의입니다.

00:47:52.371 --> 00:47:56.188
소작료 인하와 소작권
이동의 반대했던 것이죠?

00:47:56.288 --> 00:47:59.690
그러니까 토지조사사업 이전에는
소작권이 이동이 안 돼요.

00:47:59.790 --> 00:48:01.504
그런데 이제는 연 단위로.

00:48:01.604 --> 00:48:05.829
1년, 2년 단위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
당시 농민들은 더 힘들었던 것이죠.

00:48:05.929 --> 00:48:07.672

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소작쟁의.

00:48:07.772 --> 00:48:13.615
소작쟁의라는 게 뭐냐면 지주한테
단체로 소작농들이 손을 잡고

00:48:13.715 --> 00:48:18.584
우리 이 소작료가 너무 심하다,
이것 좀 낮추든지 하면서

00:48:18.684 --> 00:48:20.162
우리의 대책을 요구하는 거예요.

00:48:20.262 --> 00:48:23.835
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이라고
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48:23.935 --> 00:48:29.514
1923년도에 암태도 소작쟁의가
대표적인 소작쟁의가 되겠습니다.

00:48:29.614 --> 00:48:34.992
그 이후 조선은 노농 총동맹과
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발전하게 되고요.

00:48:35.092 --> 00:48:38.700
이 당시에는 못 살게 했으니까 이제
약간 어떤 투쟁에 가깝겠습니까?

00:48:38.800 --> 00:48:41.599
경제적 투쟁에 가깝죠.

00:48:41.699 --> 00:48:44.261
그런데 30년대 오면서
이제는 농민들이

00:48:44.396 --> 00:48:47.071
일본놈들 너무 나쁜
놈들이야, 라고 하면서

00:48:47.171 --> 00:48:51.388
경제적 투쟁에서 이제는
정치적 투쟁으로.

00:48:51.488 --> 00:48:56.940
정치적 성격을 띤 혁명적
농민조합을 만들게 된 게

00:48:57.040 --> 00:48:58.357
당시 이 운동이었고요.

00:48:58.457 --> 00:49:01.758
이렇게 농촌에서 불만이
 많아지게 되자

00:49:01.858 --> 00:49:06.105
일본은 우리나라 농민들에
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

00:49:06.205 --> 00:49:13.661
1932년부터 농촌진흥 운동을 펼치기도

했었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.

00:49:14.483 --> 00:49:17.666

이게 소작쟁의
발생 건수가 되겠죠?

00:49:17.766 --> 00:49:23.590

소작쟁의가 20년대에서 30년대 오면서
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.

00:49:25.829 --> 00:49:27.080

노동운동도 있었습니다.

00:49:27.180 --> 00:49:29.077

노동자의 처지가 너무나
악화되었어요.

00:49:29.177 --> 00:49:30.983

사회주의도 많이 확산되었고요.

00:49:31.083 --> 00:49:34.141

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노동쟁의가
일어나게 되었습니다.

00:49:34.283 --> 00:49:37.550

노동쟁의는 일단 무조건
임금인상이에요.

00:49:37.650 --> 00:49:39.086

노동시간 단축, 이렇게 되면서.

00:49:39.186 --> 00:49:43.516

당시에 그리고 조선 노동자들의
삶은 진짜로 처참했었거든요.

00:49:43.616 --> 00:49:49.253

그래서 1929년도 원산 노동자
총파업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되었고

00:49:49.353 --> 00:49:54.947

이것도 역시 초기 20년대에는
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.

00:49:55.047 --> 00:49:59.368

혁명적 노동조합으로 이렇게
발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.

00:49:59.468 --> 00:50:02.848

노동쟁의 건수도 역시
많아지게 되죠.

00:50:02.948 --> 00:50:06.658

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
파트 한번 공부합시다.

00:50:07.688 --> 00:50:09.057

여러분, 기억납니까?

00:50:09.157 --> 00:50:14.202

제가 4강 수업이었을 거예요.

00:50:14.302 --> 00:50:21.200

1900년에서 1910년 정도까지
당시 대한제국기의 문화 파트랑

00:50:21.300 --> 00:50:25.430

1920~1930년도의 문화랑
반드시 구분해달라 했습니다.

00:50:25.530 --> 00:50:27.517

그때는 뭐가 있었죠?

00:50:27.617 --> 00:50:31.523

신소설, 신체식 있었다고 했었죠?

00:50:31.623 --> 00:50:33.665

해에게서 소년에게라든가
혈의 누라든가

00:50:33.765 --> 00:50:35.768

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라든가
이런 거 있었고요.

00:50:35.868 --> 00:50:37.111

창가 있었었고요.

00:50:37.211 --> 00:50:41.420

그다음에 성경이라든가 천로역정, 찬송가
같은 거 번역 있었다고 했었고

00:50:41.520 --> 00:50:46.583

원각사에서 치악산이나 은세계
같은 작품들이 등장했었다는 거.

00:50:46.683 --> 00:50:52.273

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20년대 오게
되면서 문화 활동이 바뀌게 됩니다.

00:50:52.373 --> 00:50:54.456

첫 번째, 문학 활동으로는

00:50:54.556 --> 00:51:01.855

동인지 활동이 20년대에
창조, 백조 같은 게 발표되었고요.

00:51:01.955 --> 00:51:07.239

무엇보다 민족적 정서를 담아내는
그런 시들이 쏟아집니다.

00:51:07.339 --> 00:51:10.912

제가 봤을 때 시 이름,
네이밍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.

00:51:11.012 --> 00:51:11.825

이게 뭐니까?

00:51:11.925 --> 00:51:16.183

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
봄은 오는가.

00:51:16.283 --> 00:51:17.722

여러분, 이거 정말 대박 아닙니까?

00:51:17.822 --> 00:51:21.087
빼앗긴 들, 이게 어디예요?
조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

00:51:21.187 --> 00:51:23.703
봄이라고 하면 해방.

00:51:23.803 --> 00:51:26.773
이거 반드시 와해된다는
것을 역설적이게 설명하는

00:51:26.873 --> 00:51:29.535
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.

00:51:29.635 --> 00:51:30.752
김소월의 진달래꽃.

00:51:30.852 --> 00:51:34.510
이것은 가요로 만들어지게
되면서 마야라는 분이

00:51:34.610 --> 00:51:41.715
(노래)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
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

00:51:41.815 --> 00:51:48.841
영변에 약산 진달래꽃
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.

00:51:48.941 --> 00:51:49.752
이건 뭘니까?

00:51:49.852 --> 00:51:51.749
즈려밟는데 사뿐히
밟을 수가 없겠죠?

00:51:51.849 --> 00:51:56.369
이것은 도저히 밟지 말고 너
가지 마라, 라는 이야기죠?

00:51:56.469 --> 00:52:00.179
그걸 역설적이게 당시 우리
민족적 감정을 잘 담아냈고요.

00:52:00.279 --> 00:52:04.466
그다음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 같은
경우는 불교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지만

00:52:04.566 --> 00:52:06.775
그는 정말로 놀라운 시인이죠?

00:52:06.875 --> 00:52:09.119
그래서 님의 침묵.

00:52:09.219 --> 00:52:10.749
사랑하는 나의 님은 갓습니다.

00:52:10.849 --> 00:52:15.724
그렇지만 나는 그 님을
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.

00:52:15.824 --> 00:52:19.916

1920년대 중반에 정말로 멋진
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.

00:52:20.016 --> 00:52:22.770

그리고 또 하나 1920년대
우리나라에서 무슨 운동이 있었습니까?

00:52:22.870 --> 00:52:24.833

사회주의 운동이 활개를 많이 치죠?

00:52:24.933 --> 00:52:28.324

그래서 그 문화를 뭐라고 하나면
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고 해서

00:52:28.424 --> 00:52:29.756

프로문학이라고도 하고요.

00:52:29.856 --> 00:52:33.931

이것을 새로운 경향이다, 라고 해서
신경향파 문학이라고도 불러요.

00:52:34.031 --> 00:52:35.780

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.

00:52:35.880 --> 00:52:39.566

특히 무산계급의 의식을
고취하게 되면서

00:52:39.666 --> 00:52:46.731

카프라는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띤
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는 거.

00:52:46.831 --> 00:52:52.029

그다음에 연극과 영화 같은 경우는
토월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고요.

00:52:52.129 --> 00:52:57.549

특히 토월회랑 많이 헛갈리는 게 원각사라는
극장에서 작품 열었던 거 있죠?

00:52:57.649 --> 00:52:58.831

그거랑 많이 헛갈립니다.

00:52:58.931 --> 00:53:01.341

이 토월회는 도쿄
유학생들이 조직했고

00:53:01.441 --> 00:53:04.892

남녀평등과 구습타파나 이런
것들 주장했던 것이고

00:53:04.992 --> 00:53:09.637

그다음에 1926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
영화가 나오게 되니 그게 뭐니까?

00:53:09.737 --> 00:53:16.442

리랑 리랑 아리랑이라는 나운규의
영화가 나오게 되었었다는 것도

00:53:16.542 --> 00:53:18.772
같이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53:18.872 --> 00:53:23.018
30년대 오면서 이제는 뭔가 현실을
외면하는 순수문학도 나오게 되고요.

00:53:23.118 --> 00:53:25.136
친일문학이 등장하게 됩니다.

00:53:25.236 --> 00:53:28.934
노천명, 서정구, 최남선,
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?

00:53:29.034 --> 00:53:34.321
이 노천명의 대표적인 시가 모가지가
길어서 슬픈 짐승이여, 이거죠?

00:53:34.421 --> 00:53:36.373
기린 아닙니다,
사슴을 이야기합니다.

00:53:36.473 --> 00:53:38.227
대표적인 친일 시인이고요.

00:53:38.327 --> 00:53:44.536
그럼에도 불구하고
30년대에 저항문학.

00:53:44.636 --> 00:53:46.250
역시 그는 누구니까?

00:53:46.350 --> 00:53:53.887
평생 20대로 살다간, 지금도 우리
문학계의 거성으로 남아있는 윤동주.

00:53:53.987 --> 00:53:56.985
서시, 별 헤는 밤 등이 있죠.

00:53:57.085 --> 00:54:00.934
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
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.

00:54:01.034 --> 00:54:03.773
앞새에 이는 바람에도
나는 괴로워했다.

00:54:03.873 --> 00:54:07.844
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
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

00:54:07.944 --> 00:54:11.310
그리고 나한테 주어진
길을 걸어야 되겠다.

00:54:11.410 --> 00:54:15.631
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.

00:54:16.324 --> 00:54:20.450
제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시예요.

00:54:20.574 --> 00:54:25.650
시를 읊조릴 때마다 다시 한번
저희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

00:54:25.750 --> 00:54:28.835
바로 그러한 운동주의
서시, 별 헤는 밤.

00:54:28.935 --> 00:54:31.832
별 헤는 밤은 제가
외우기에는 너무 길죠?

00:54:31.932 --> 00:54:35.348
그다음에 이육사의 광야라든가 절정.

00:54:35.448 --> 00:54:41.147
이런 시들 위낙에 저항 문학으로서 완벽한
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54:41.247 --> 00:54:43.579
그리고 30년대 연극과
영화 활동으로는

00:54:43.679 --> 00:54:50.424
극예술연구회라든가 유성영화 같은
것들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.

00:54:50.524 --> 00:54:55.516
중요한 건 여기에 있었던
이 시대의 문화랑 1900몇 년 대?

00:54:55.616 --> 00:54:59.001
1900년에서 1910년
정도 대한제국기에 있었던

00:54:59.101 --> 00:55:02.190
당시의 문화적 활동이랑 반드시
구분해두셔야 된다는 거

00:55:02.290 --> 00:55:05.560
이거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여기 각각의 작품들.

00:55:05.689 --> 00:55:08.489
신경향파 문학, 카프라는 조직이
나오게 되었었다.

00:55:08.589 --> 00:55:11.747
토월회, 아리랑, 극예술연구회.
그다음에 저항문학.

00:55:11.847 --> 00:55:15.773
이런 거까지 다
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55:15.873 --> 00:55:17.865
그리고 여기 음악과 체육은 사실

00:55:17.965 --> 00:55:20.631
여러분, 내신 문제로는
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.

00:55:20.778 --> 00:55:23.681

이건 제가 교과서에 있으니까
그냥 다뤄드리긴 한 겁니다.

00:55:23.781 --> 00:55:25.254

이건 조금 편히 보시면 되고요.

00:55:25.354 --> 00:55:26.183

그런데 또 모르죠.

00:55:26.283 --> 00:55:29.389

여러분,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
거 강조하셨으면 보셔야 되겠지만

00:55:29.489 --> 00:55:32.488

강조하시는 선생님은 사실
수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.

00:55:32.588 --> 00:55:35.211

20년대 음악으로는 흥난파.

00:55:35.311 --> 00:55:39.713

(노래) 올 밑에선 봉선화야

00:55:39.813 --> 00:55:42.180

고향의 봄이라든가 봉선화,
이런 거 있고요.

00:55:42.280 --> 00:55:44.188

그다음에 윤극영 선생님의 반달.

00:55:44.288 --> 00:55:47.127

그다음에 현제명 선생님의 고향
생각, 이런 것들 있고요.

00:55:47.274 --> 00:55:51.383

스포츠로는 조선체육회가
1920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

00:55:51.483 --> 00:55:57.228

30년대 오면서 음악으로는 우리 안익태
선생님의 애국가가 작곡되었고요.

00:55:57.328 --> 00:56:01.469

36년도 베를린올림픽에
마라톤에서 금메달.

00:56:01.569 --> 00:56:06.167

손기정 선생님이 금메달을 따셨죠?

00:56:06.267 --> 00:56:12.505

그런데 이때 일장기가 있었기 때문에
일장기를 빼는 문제로 인해서

00:56:12.605 --> 00:56:17.077

당시 우리나라 동아일보라든가 이런
신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.

00:56:17.177 --> 00:56:19.607

잘 모르시는데 이때 금메달을

손기정 선수가 땀고

00:56:19.707 --> 00:56:22.707

동메달을 남승룡 선수라는
선수가 땀었습니다.

00:56:22.807 --> 00:56:27.498

40년대 오면서 이중섭
선생님의 소그림이라든가

00:56:27.598 --> 00:56:29.475

이런 것들이 유행했었고요.

00:56:29.575 --> 00:56:30.791

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.

00:56:30.891 --> 00:56:33.987

여러분, 마지막까지 조금만
더 파이팅 해주세요.

00:56:34.087 --> 00:56:37.583

의식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

00:56:37.683 --> 00:56:39.997

그래서 의로는 주로 셔츠나 바지.

00:56:40.097 --> 00:56:43.536

이런 것들이 우리 당시
사람들한테 많이 퍼져왔었고요.

00:56:43.636 --> 00:56:47.015

그리고 뭔가 센스있는
남자들, 여자들.

00:56:47.115 --> 00:56:48.852

이런 사람들의 용어가 있었는데

00:56:48.952 --> 00:56:53.104

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게
모던보이, 모던걸이 있었습니다.

00:56:53.204 --> 00:56:58.387

그다음에 중일 전쟁
이후 어떻게 됩니까?

00:56:58.487 --> 00:57:00.465

일제는 우리나라에서 더
뽕아먹어야 되죠?

00:57:00.565 --> 00:57:03.127

전쟁이 시작되니까 일을
더 시키려고 하거든요.

00:57:03.227 --> 00:57:07.165

그래서 중일 전쟁 이후에는 그들이
우리의 의복까지 관여합니다.

00:57:07.265 --> 00:57:09.078

남자한테는 국민복.

00:57:09.178 --> 00:57:11.081

이 국민복 대박입니다,
때가 안 타요.

00:57:11.181 --> 00:57:12.642
군복이랑 거의 비슷해요.

00:57:12.742 --> 00:57:14.094
이거 입고 빨리 일 더 하라고.

00:57:14.194 --> 00:57:19.006
여성들한테는 당시 강요했던
게 바로 몸빼 바지입니다.

00:57:19.136 --> 00:57:21.596
저도 집에 가면 가끔
여름 때 한번 입는데

00:57:21.696 --> 00:57:23.680
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그렇게
많이 입고 계시죠?

00:57:23.780 --> 00:57:26.720
세상에 이렇게 편한
바지가 없습니다.

00:57:28.179 --> 00:57:29.836
바람도 잘 들어오고요.

00:57:29.936 --> 00:57:32.546
어디에나 편히 앉아도 되고요.
때도 잘 안 타고요.

00:57:32.646 --> 00:57:34.369
그게 바로 몸빼 바지입니다.

00:57:34.469 --> 00:57:37.177
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.

00:57:37.277 --> 00:57:39.238
당시에 먹는 음식으로는 서양 음식.

00:57:39.338 --> 00:57:42.998
빵이라든가 아이스크림, 커피,
맥주 등이 그때 들어왔고

00:57:43.098 --> 00:57:47.020
새로운 음식으로는 청량음료,
조미료, 통조림, 이런 것들.

00:57:47.120 --> 00:57:52.957
잡곡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
쌀이 부족해지게 되었고

00:57:53.057 --> 00:57:55.826
주거 활동으로는 2층
양옥집이라든가 개량한옥.

00:57:55.926 --> 00:58:02.087
토막집이라고 해서 땅 파고
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

00:58:02.187 --> 00:58:05.406

흙을 덮어서 만든 그러한
집들이 있었어요.

00:58:05.506 --> 00:58:10.152

대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
주로 토막집에 많이 살았고요.

00:58:10.252 --> 00:58:12.093

하류계층에서는 주로 일본식 건물에다

00:58:12.193 --> 00:58:15.401

온돌을 까는 그러한 형태의
집도 있었습시다.

00:58:15.501 --> 00:58:16.568

이건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.

00:58:16.668 --> 00:58:19.834

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건
한 이 정도밖에 없어 보입니다.

00:58:19.934 --> 00:58:21.829

한번 볼까요?

00:58:22.458 --> 00:58:28.060

일제 강점기 의생활의 변화
여기 보시면 모던 결과 모던 보이.

00:58:28.198 --> 00:58:31.829

일제 강점기 도시를 중심으로
서양식 복장이 보편화되었다.

00:58:31.929 --> 00:58:34.907

서양식 복장을 착용한
모던 결과 모던 보이는

00:58:35.007 --> 00:58:38.264

도시의 소비문화를 이끌어
가는 새로운 상징이었다.

00:58:38.400 --> 00:58:42.514

당시에 약간 잘 나가던
그런 젊은이들.

00:58:44.361 --> 00:58:49.113

주로 서양식 복장을 잘 입었던 사람들을
모던 걸, 모던 보이라고 했고요.

00:58:49.213 --> 00:58:50.830

이게 국민복입니다.

00:58:50.930 --> 00:58:52.535

딱 봐도 때 안 타게 생겼죠?

00:58:52.635 --> 00:58:55.585

그다음에 아마 여러분, 할머니들이
한두 벌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.

00:58:55.685 --> 00:58:58.781

집에 여러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

이게 몸빼 바지입니다,

00:58:58.881 --> 00:59:00.032
엄청나게 편한 바지.

00:59:00.132 --> 00:59:03.071
그런데 이걸 강요했었던
이유가 있죠.

00:59:03.171 --> 00:59:07.195
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
침략 전쟁에 함께 해야 한다면서

00:59:07.295 --> 00:59:09.548
군복과 비슷한 국민복을
입도록 강요하였다.

00:59:09.648 --> 00:59:12.038
또한,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

00:59:12.138 --> 00:59:17.018
여성들까지 근로 보국대, 정신대
등으로 동원하여 노역을 부과하였는데

00:59:17.118 --> 00:59:22.673
이때 몸빼를 입도록 강요하였다는 거
같이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59:22.773 --> 00:59:24.170
좋습니다, 여러분.
어떻습니까?

00:59:24.270 --> 00:59:28.911
오늘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때

00:59:29.011 --> 00:59:32.051
당시의 사회적인 움직임과
문화파트까지 했고요.

00:59:32.151 --> 00:59:38.480
다음 시간에는 광복 이후 펼쳐졌던
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

00:59:38.580 --> 00:59:42.827
이런 것들 쪽 같이 한번
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59:42.959 --> 00:59:46.441
우리 다음 강에 더 즐거운
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

00:59:46.541 --> 00:59:48.385
인사드리고 마칠게요.

00:59:48.485 --> 00:59:53.723
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~